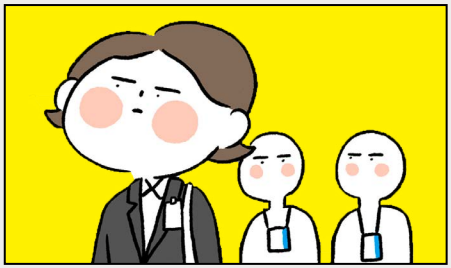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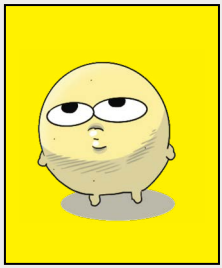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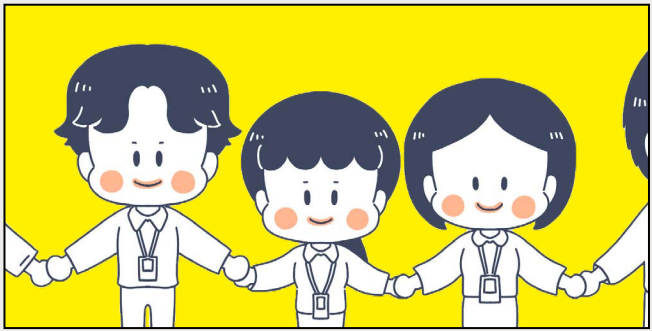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드는
시민 에세이



회사에서 읽는 만화



서울특별시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드유

차 례

1
직장 내 성희롱, 우리가 연대하는 법

저랑 같이 가실래요? 6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16
3분기 여성 전략 회의 26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36

위드유가 함께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47

2
누군가는 반드시 말할 수 있는 회사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 58
할 말은 해야겠어! 68
단 한 사람의 힘 78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 86

위드유가 함께해요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97

3
회사가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할 때

재난행동요령 108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18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 128

위드유가 함께해요 〈사건처리지원〉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 139
사건처리지원사업 | 이름 없는 시간 149

1

직장 내 성희롱, 우리가 연대하는 법

1화 저랑 같이 가실래요?

2화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3화 3분기 여성 전략 회의

4화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나보다 서너 살 어린 동료 교사였다.

글 | 미아
그림 | 정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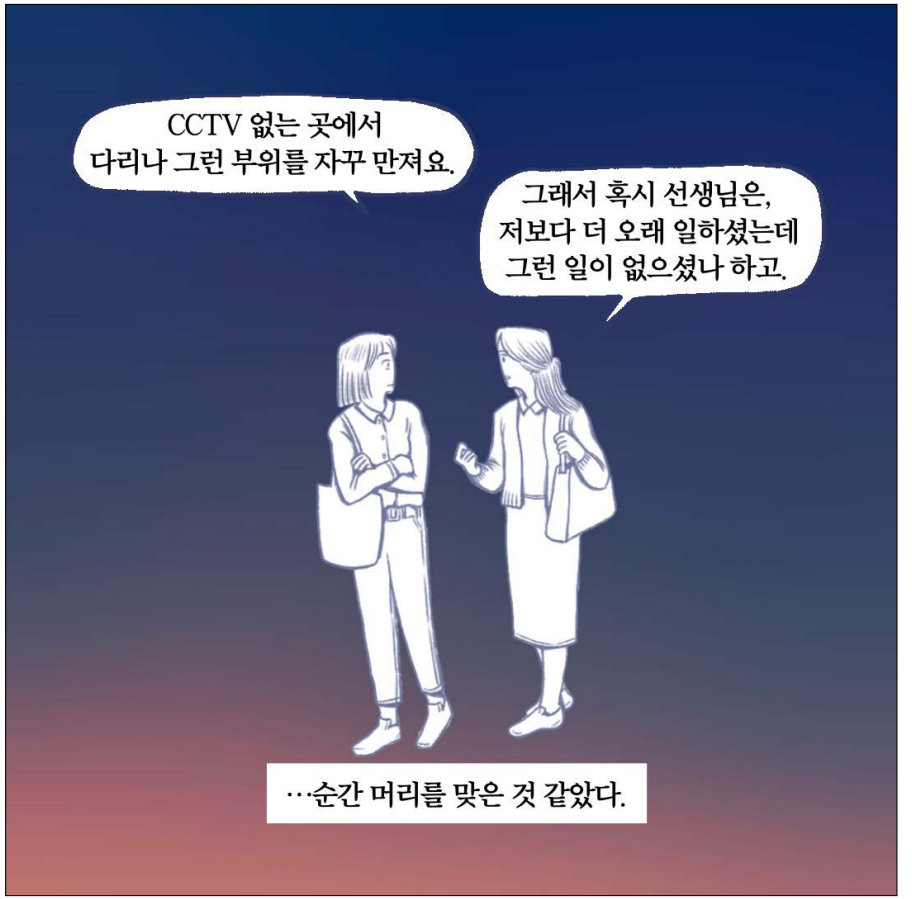
나는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2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동료 선생님이 함께 퇴근하자고 말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퇴근길을 함께 하게 되었다.

네 번째 동행길, 우리가 가르치는
중학생 남자애들에게서 나오는
온갖 여성혐오적 표현들로 화제가 튀었다.

나는 그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한 학생에게
선생님 김치녀냐는 소리를 듣고
기가 차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머뭇거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CCTV 없는 곳에서
다리나 그런 부위를 자꾸 만져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저보다 더 오래 일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으셨나 하고.
…순간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 선생님이 당한 일 자체가
놀라워서가 아니었다.
1년 전, 바로 내가 당했던 일이라서.

그리고 그 일을 한동안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인데.

지금 선생님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어떻게 된 건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냈던
나 자신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

가슴이 꽉 막혀왔다.

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혹시 내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했었나?

그런데 그녀는 그런 생각보다는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나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가 먼저 나와 연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를 치유해주고, 사건에 뛰어들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학원장을 고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건 20대가 되고 나서 겪어온
여러 성폭력 경험 중
처음으로 해본 '진짜 대응' 이었다.

만약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다.

그녀에게 배운 그대로,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웃드유상

2화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서울특별시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웃드유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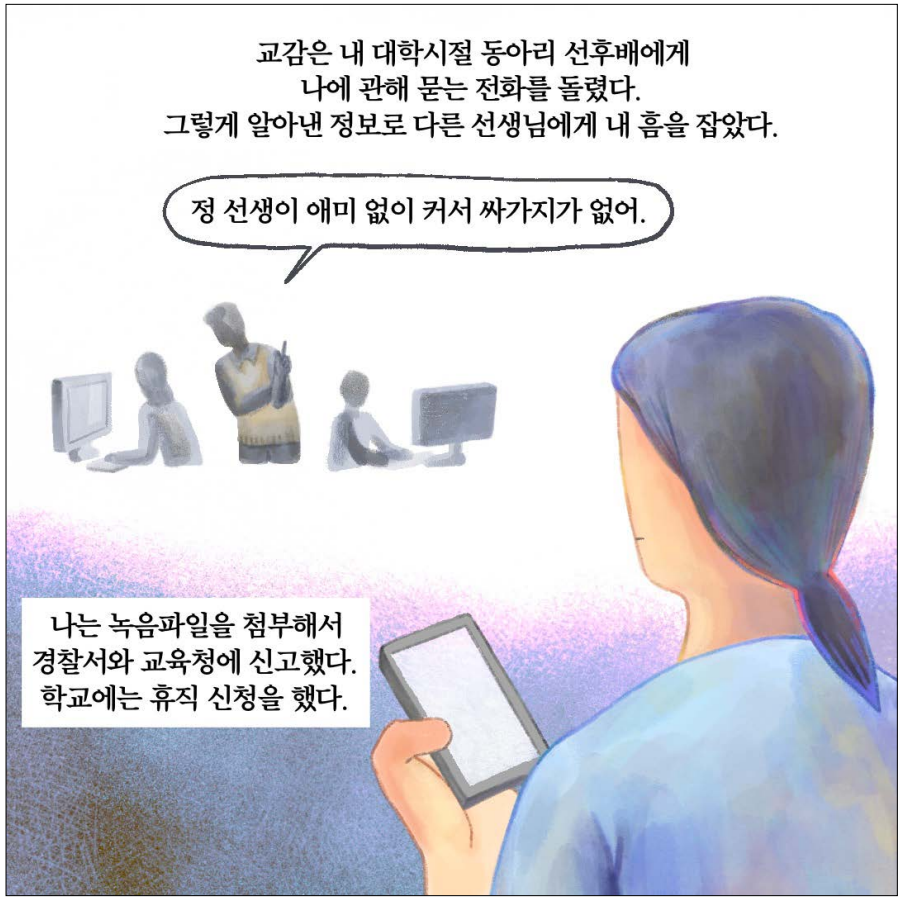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글 | 정은주
그림 | 정켈

생리?
생리한다는 증거 있어요?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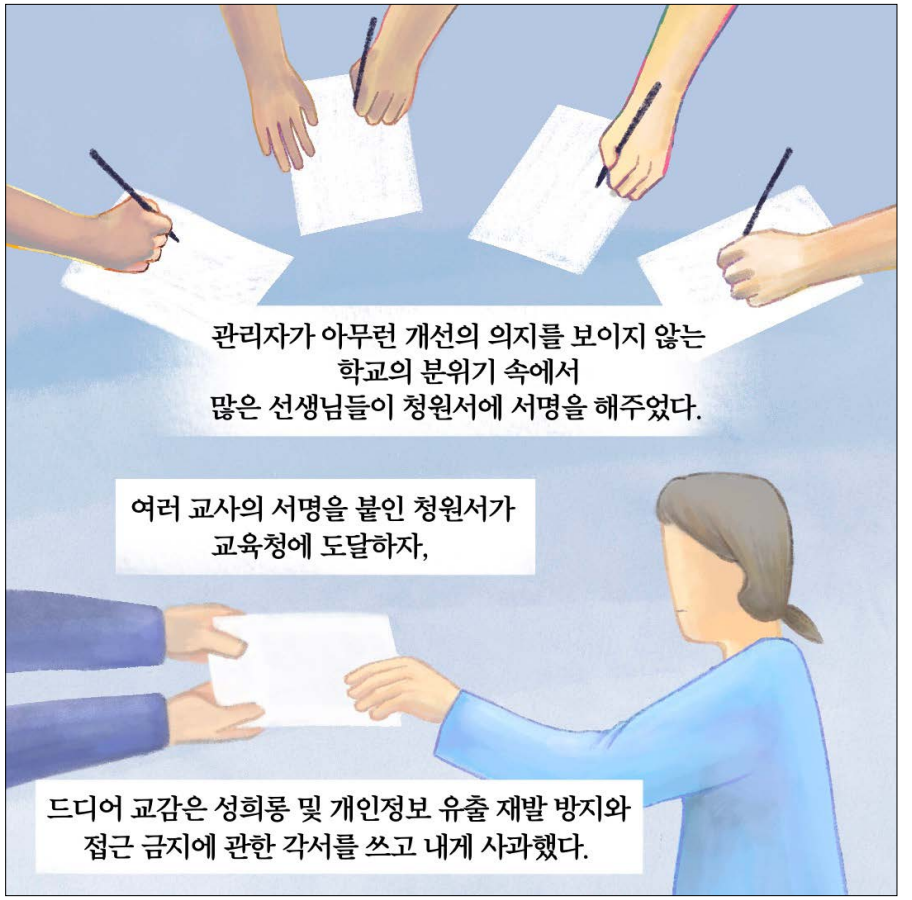
증거 가져와요.
정 선생이 생리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생리대라도 가져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야지.
조금 어두웠던 그 오후 교무실의 풍경, 온도,
열이 나던 머리와 다리가 조금 떨렸던 느낌은 아직도 선명하다.
가슴이 막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타자치는 소리만 들렸다.

다음날 교무실에서 사과를 받으려 하자
교감은 반말로 나에게 고함을 쳤다.
사과?
어린 게 기어 오르고 있어!!!


교감은 내 대학시절 동아리 선후배에게
나에 관해 묻는 전화를 돌렸다.
그렇게 알아낸 정보로 다른 선생님에게 내 흠을 잡았다.
정 선생이 애미 없이 커서 싸가지가 없어.
나는 녹음파일을 첨부해서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했다.
학교에는 휴직 신청을 했다.

휴직원을 올리던 날 교장은 자기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다.
교장의 곤란함에 대한 긴 이야기는 해가 기운 후에 끝났다.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망을 느꼈다.

그렇게 휴직한 지 한 달여 만에 같은 학년 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직원들에게 받은 청원서와 서명이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다른 교사들 덕분에 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202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워드유상

3화 3분기 여성 전략 회의

글 | 익명
그림 | 퇴사원J

여러 증거들을 감사실에 제출했지만
동료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쉽게 고발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 사태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상대로 사원들의 목소리가 폭발했어요.

이런 정황들을 모두 수집해서 사내 고충 상담원을 찾아갔지만...

행위자가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걸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감사실의 긴 상담과 회유 끝에
사과로만 끝나버린 사건이지만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데 성공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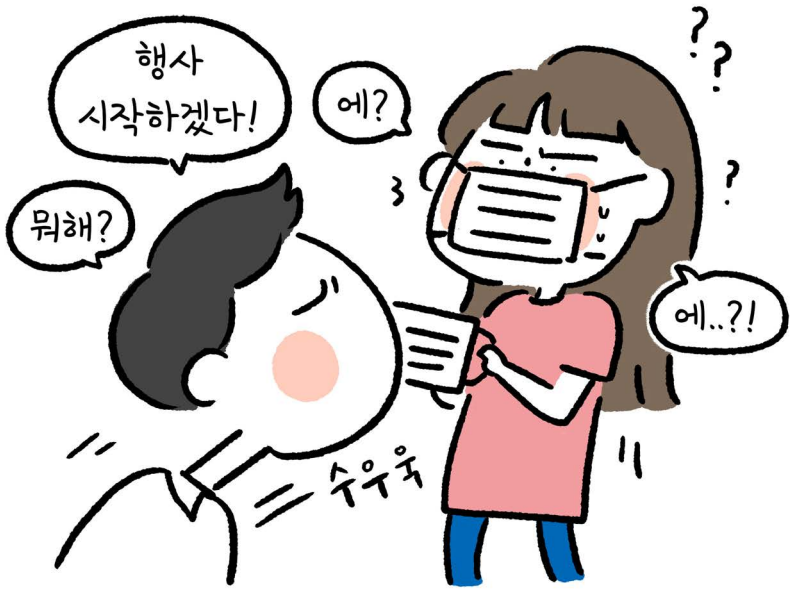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연대,
3분기 전략 회의는 성공적이었어요!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4화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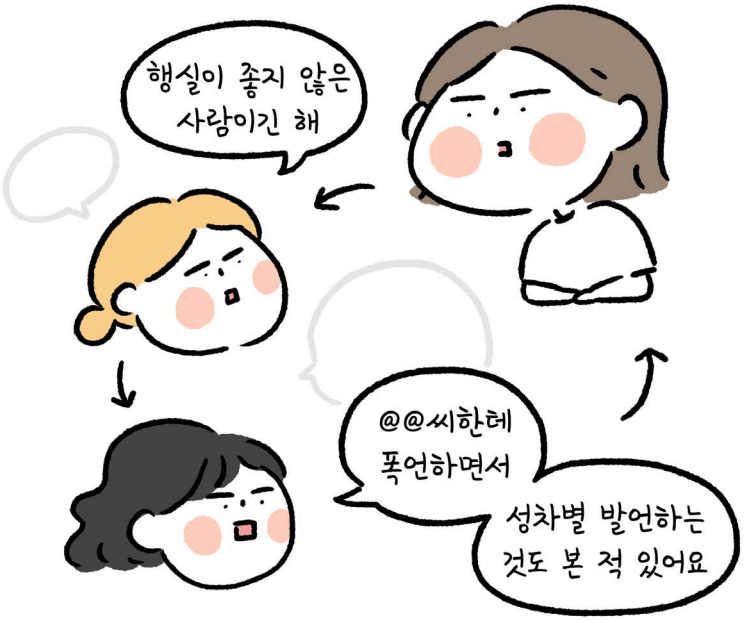
글 | 조은지
그림 | 퇴사원J

"자꾸 씌워달라고 하셔서
엉겁결에 씌워드렸는데요..."



팀 내 유일한 여성이었던 내게
정사원이 찾아와서 말했다

조심스럽게 박 대리로 인한 피해 사실을
묻기 시작하자 꽤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모두 함께 쓴 탄원서도 완성되었다.

회사 내 분위기는 부서별로 갈렸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박 대리의 좌천이 결정되었다.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숨을 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우리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웃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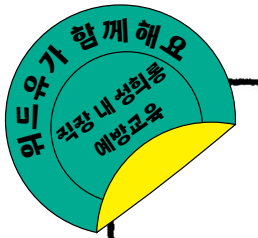
20년차 여자 직장인으로서 공감이 돼요. 비슷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이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기꺼이 함께 가는 선배이자 동료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저렇게 발 벗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나선 직장동료분들 정말 멋집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대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네요. 좋은 예시를 배웠으니 저도 함께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같은 성차별적인 일들은 주변인의 도움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일도, 특정 성별의 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본문은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웹툰 댓글 이벤트 참여자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연대가 쌓여 큰 우산으로

글 | 익명
그림 | 이아리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가작

상사들이 나의
머리스타일
립스틱 색깔
치마길이
다리굵기
…까지도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한 나는 용기를 내어
여자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 선배님…
뭐?! 너한테도 그랬어?
나도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배는 얼굴이 벌개지며 공감해주었다.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보다 1년 먼저 입사한 남자선배도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공감은 작은 연대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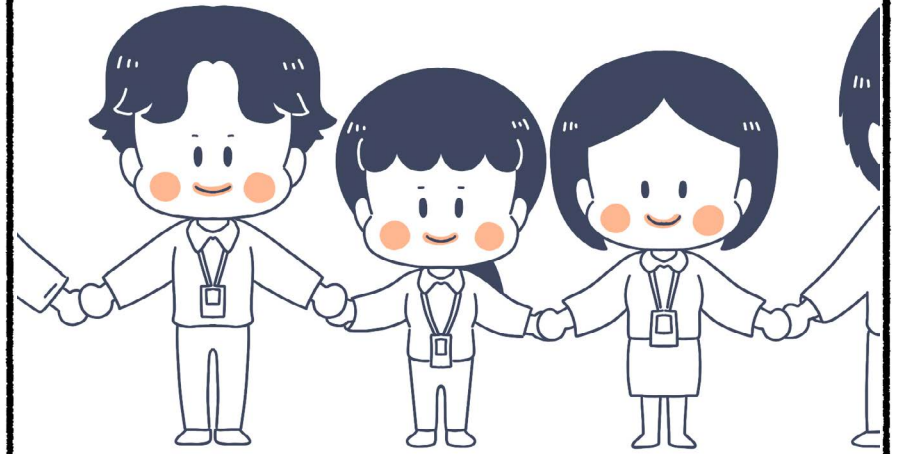
무례한 질문이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대화 주제를 바꿨고,

말을 받아치는 방법도 익혀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회적으로
미투(Me_too)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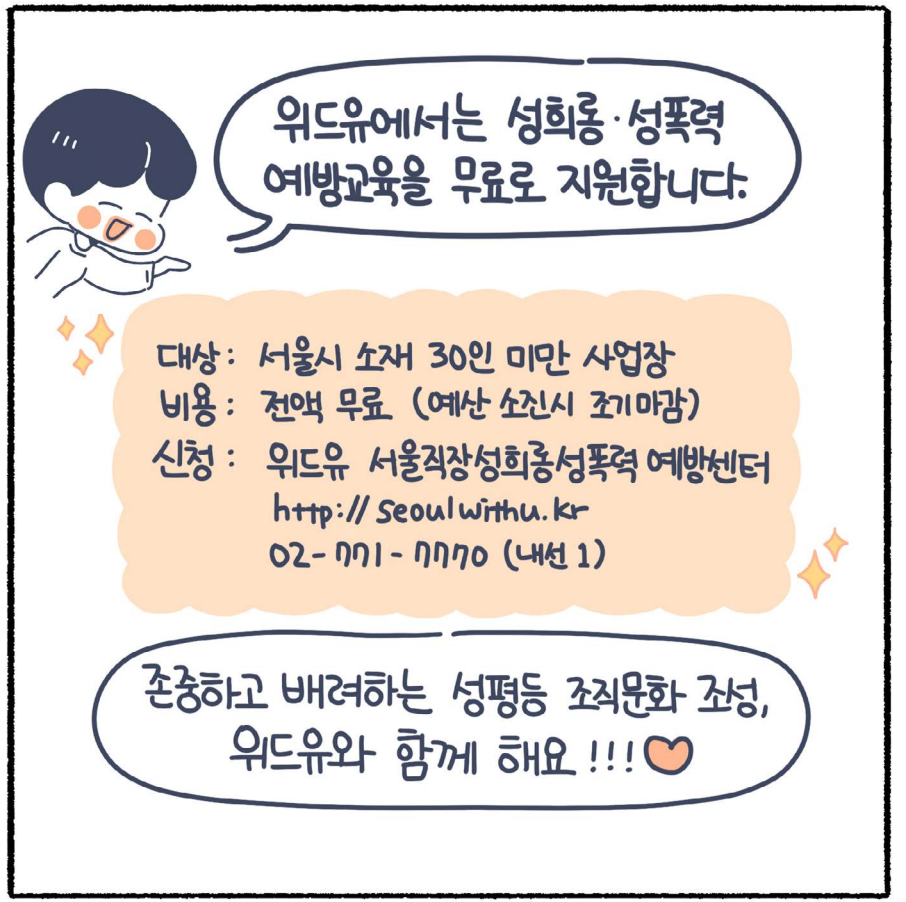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나의 큰 버팀목이 되었고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가장 큰 힘이 되며,

꾸준한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군가는 반드시 말할 수 있는 회사

5화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
6화 할 말은 해야겠어!
7화 단 한 사람의 힘
8화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

202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5화 침묵, 비겁했던 나의 선택

글 | 서진
그림 | 퇴사원J

상사의 부인에게 문자가 왔고,
문자 속 저는 상사와 바람난 쓰레기였어요.

다음날 상사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침묵했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어요.

하지만 5년 뒤, 다시 만나게 된 상사는
여전히 성희롱을 일삼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 모를 자괴감에
첫사랑 같던 첫 직장을 떠났어요.

퇴사하고 6년 뒤, 사내에는
#me too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침묵]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한다면
함께 #With you 해요!

6화 할 말은 해야겠어!

202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휴..
주방 설거지 하러
가는거 너무 싫어..
글 | 홍지승
그림 | 퇴사원J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로 머리가 복잡해요.
주방 직원이 설거지할 때
은근히 만지는 거..
넌 못 느꼈어?
설거지 공간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을거 같고..
달그락

그때,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어깨를 터치하고 가는 주방 직원

이후로도 사소한 터치가 있어
좋게 말해봤지만,

코웃음이라도 치듯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저.
크게 화를 냈어요.

순식간에 싸해진 분위기..
주방 직원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주방 직원은 동료와
저를 조심히 대하는게 느껴졌어요.

이내 매장 분위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된 계기였어요.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가작

글 | 성아린
그림 | 이아리

그는 업무를 알려준다며
마우스 위에 손을
겹쳐 올리거나,
?!
아니, 그 파일
말고 이거야~
내 목덜미를
안마하기도 했다.
많이 피곤하지~?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보통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하나…?
시원해?
더 세게
주물러봐요!
쿨하게 대처하려 노력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전에 들었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이 떠올랐다.

그 뒤로 나와 신입사원은
목덜미 만지지 마세요.
하지마세요.
불편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그였지만,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섭섭하네~!
이제야 정신차렸군…
조심…
그의 터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서울워드유창

8화 모기가 취준생에게 미치는 영향

글 | 김윤경
그림 | 퇴사원J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들의 사원증을 부러워하던 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가
불현듯 귀에 박혔어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진 엘리베이터 안..

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비품 교체건으로
공지를 전달하던 중이었는데,

귀찮다는 듯 손사레 치던 차장님,
성가신 모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암컷'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의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으면 어땠을까요.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성평등한 조직의 일원이 되고 싶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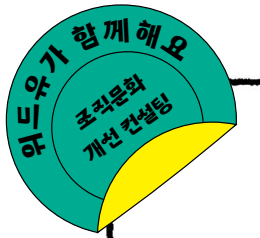
처음 직장 생활할 때가 떠올라요. 성희롱에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회사가 문제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저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일을 크게 만들어'처럼 행위자를 옹호하는 듯한 말과 시선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워요.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으려면
직장 내 성희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 상사가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항상 했는데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웠어요.
회사 차원에서 관련 평가나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외모 평가받으려고 들어온 회사가 아니에요.
사적인 평가와 무례한 질문 멈춥시다.
조직문화가 바뀌면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본문은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웹툰 댓글 이벤트 참여자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글 | 홍산
그림 | 이아리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가작

그는 편견을 서슴없이 내뱉었으며,
모든 여성을 세부류로 나눌수 있다고 말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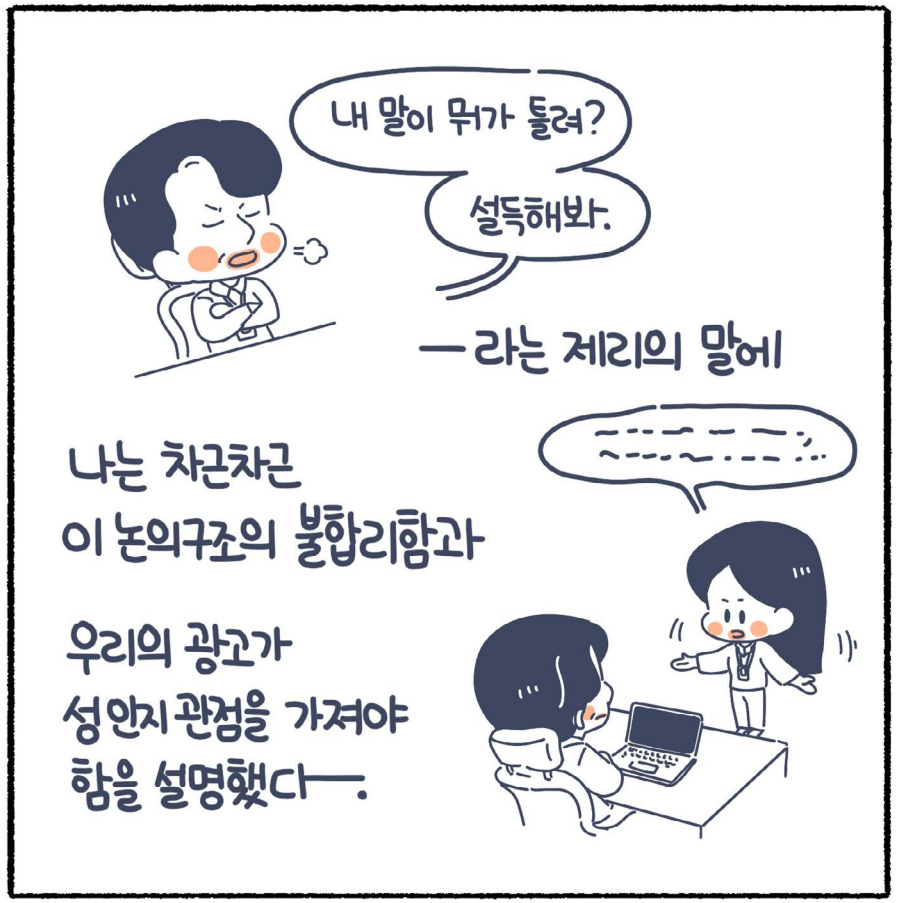
나를 '훌륭한 딸 감'이자

'최악의 여자친구 감'이라 평가했다.

그러던 중, 한 운동복 브랜드에서
'우먼스 저스트 두잇' 캠페인과 같은 느낌의
광고를 해보자는 제안이 왔다.

나는 일곱개의 안을 준비해갔다.

하지만 제리는
내 기대를 밟아 뭉갰다.


내 말이 뭐가 틀려?
설득해봐.
—라는 제리의 말에
나는 차근차근
이 논의구조의 불합리함과
우리의 광고가
성인지 관점을 가져야
함을 설명했다—.

그제야 그는 팔짱을 풀고 말했다.
… 솔직히 말할게.
네가 말하는 여자들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
공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되기 시작했어.
제리의 이해를 득한 승리의 야근이었다.

승리의 야근 이후,
우리 팀의 소통방식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제리의 불쾌한 언행이 사라졌고,
직원들은 한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조직문화를 점검, 개선하고
확실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

위드유 센터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성희롱없는 안심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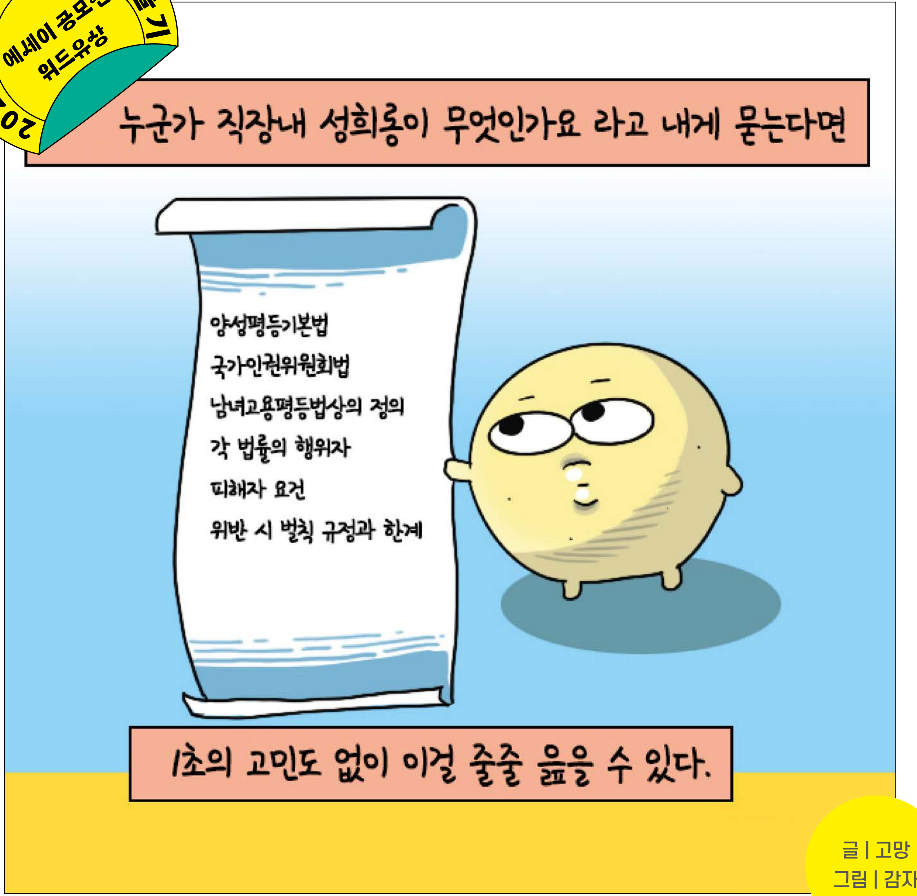
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비용 : 전액 무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http:// seoulwithu.kr
02-1111-1111 (내선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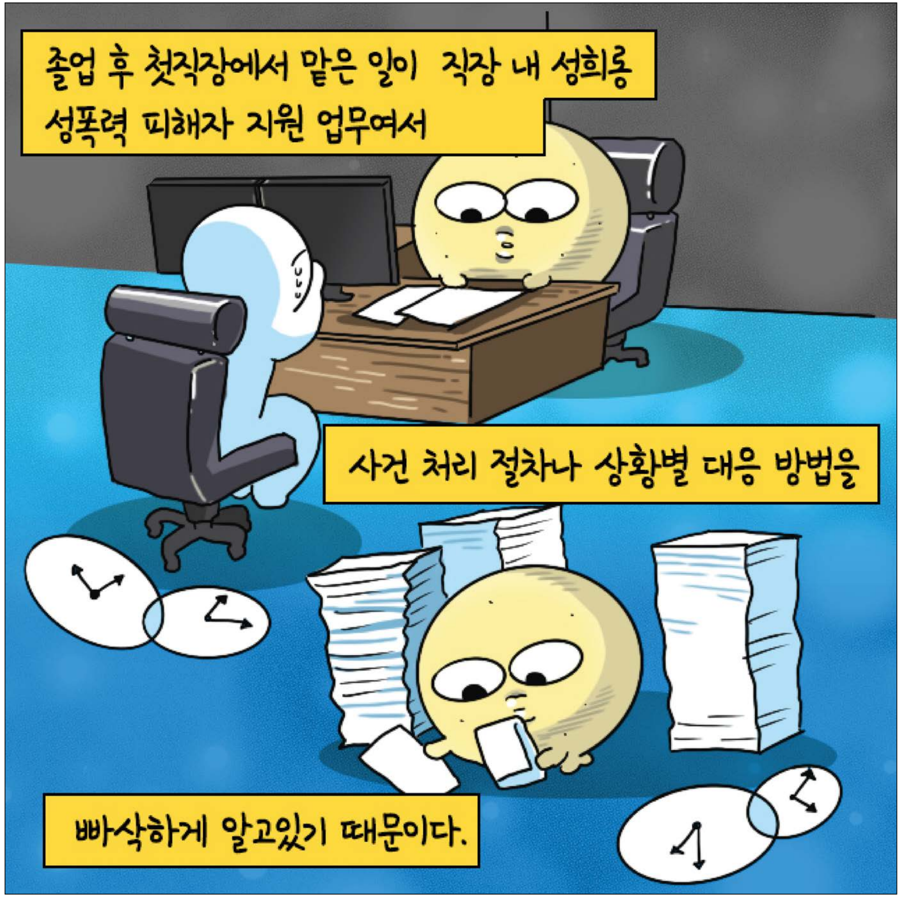
회사가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할 때

9화 재난행동요령
10화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11화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글 | 고망
그림 | 감자



나는 계약직 직원이라 연말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채용공고가 나기전 동네호프집 알바를 했다.
딸래미~
아가씨!
우리 며느리 와서
술 좀 따라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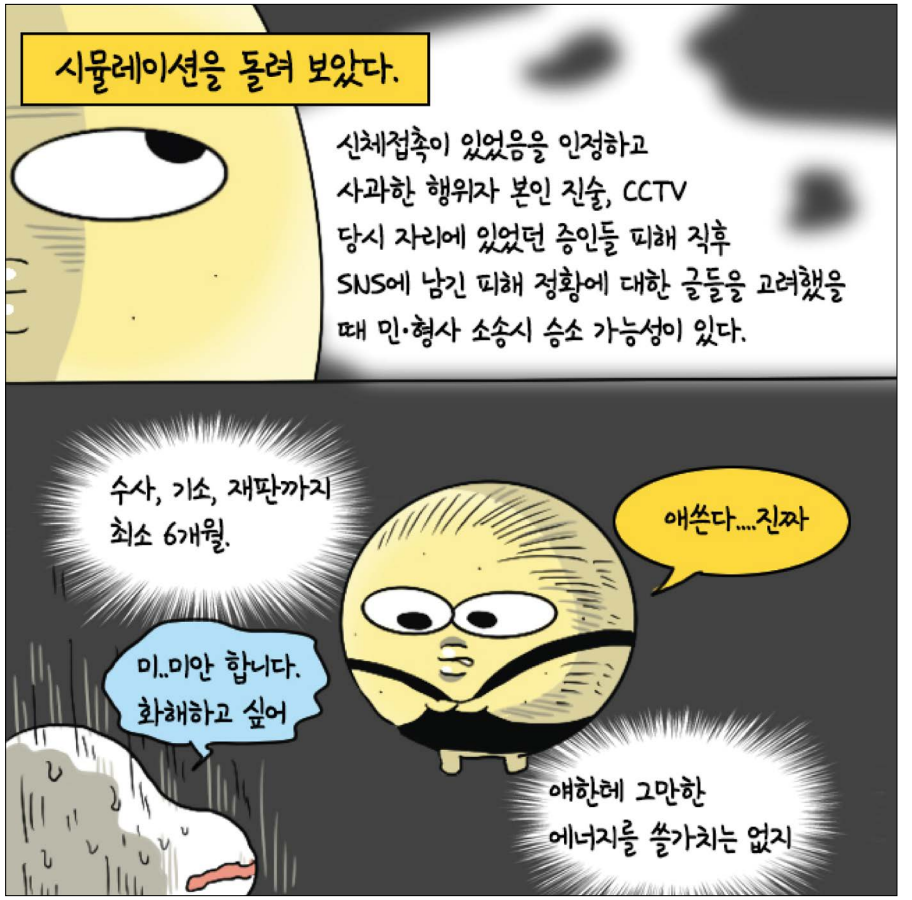
그중 K는 나를 알바라 부르는 손님이었다.
어이 알바!!
땅콩 더 줘!! 단골이잖아
사장님 내가 살테니까
알바랑 같이 맥주 한잔만 하게 해줘!
어휴 피해야지

그러던 어느날
K가 엉덩이를 만졌다.

.....
모르쇠
흙
지긋지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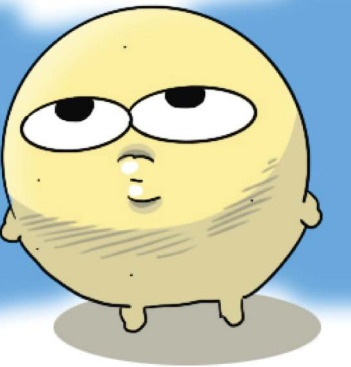
며칠 뒤.....
선생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제 엉덩이 만지고
그러시면 다음엔 안 참아요.
신고합니다.
어어어? 만진 게 아니라...
어어어어..... 어어어어
만진게 아니면 뭐요.
그럼 자동으로
손이 만졌어요?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사이다 이야기가 아니다.

일상을 지키기위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선택한 이야기



재난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겨운 성희롱
우리에겐 재난행동요령이 필요하다.

2020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회사] 정규직 직원 채용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이라니!
드디어 정규직
직원이라니!
글 | Y.S
그림 | 퇴사원J

외국인인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준 회사.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던 어느 날
열심
열심
팀장님,
이상입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그 뒤로도 상사는 서슴없이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고

그 상사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외모를 비하, 성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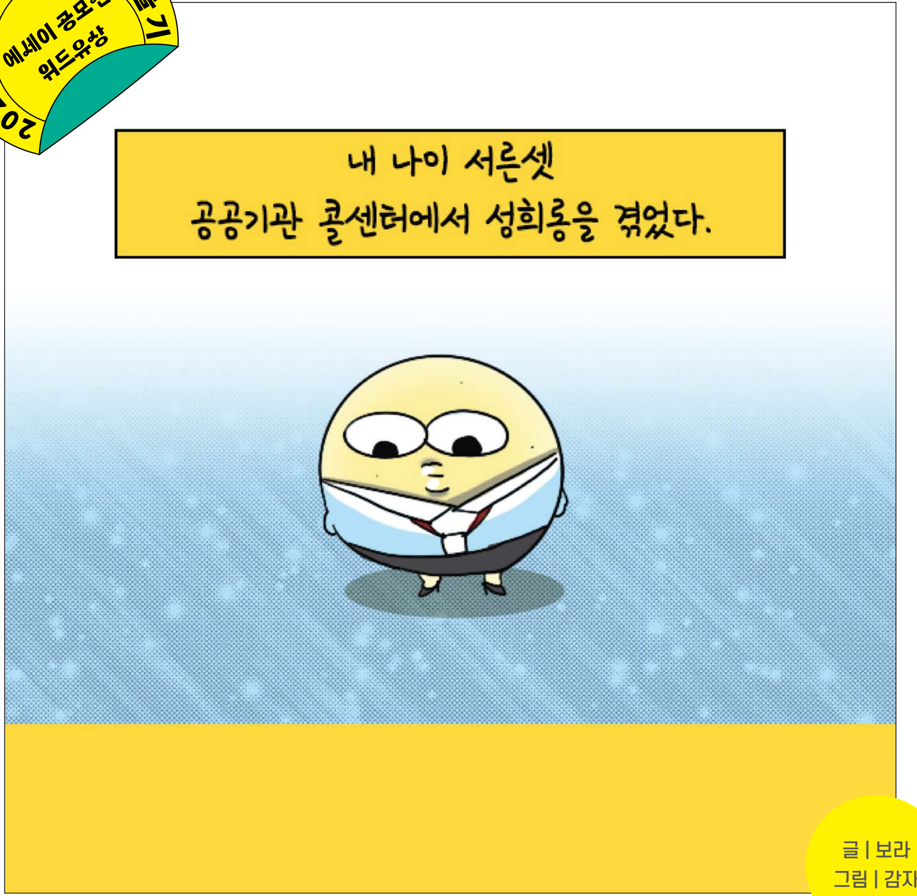
심지어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중에도

내가 회사 인사팀에 신고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더 이상 나는 참지 않았다.
용기 내어 사과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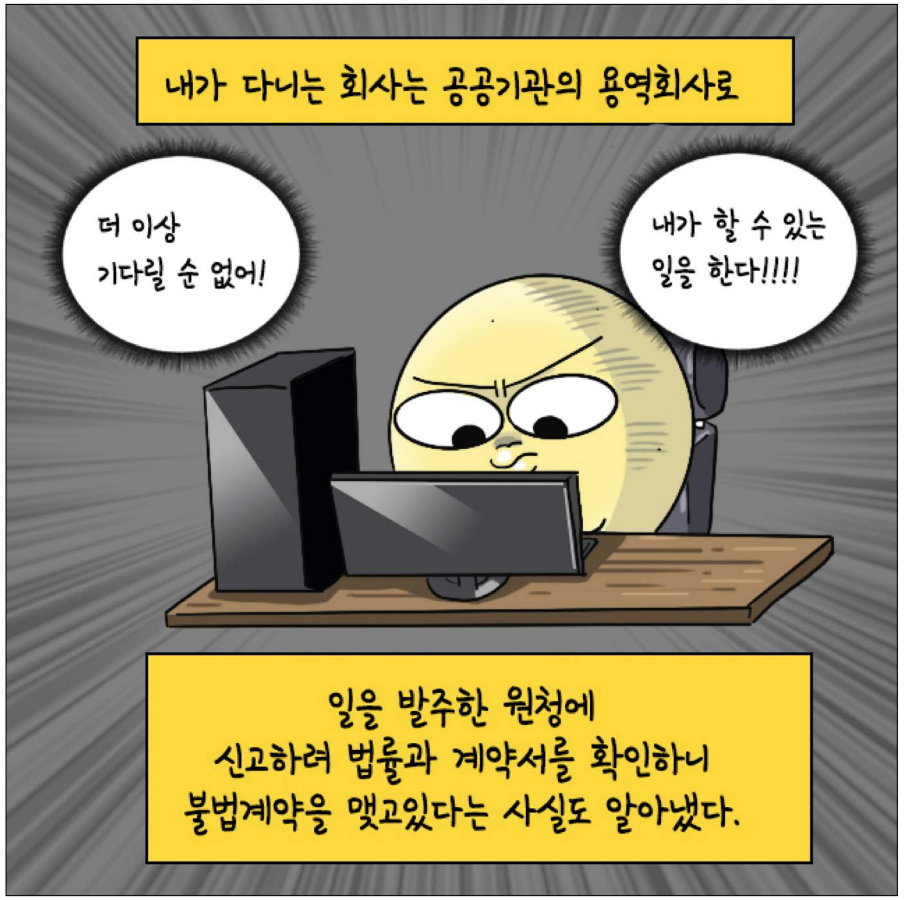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위드유상



글 | 보라
그림 | 감자

나는 참지 않았다.
사장님, 피해자인 저와 가해자인 A를 분리하고
사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 징계를 내리세요!
기다렸지만, 오히려 A가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나도 A를 고소해야겠다.
사장은 나와 동료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의 용역회사로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일을 발주한 원청에 신고하려 법률과 계약서를 확인하니 불법계약을 맺고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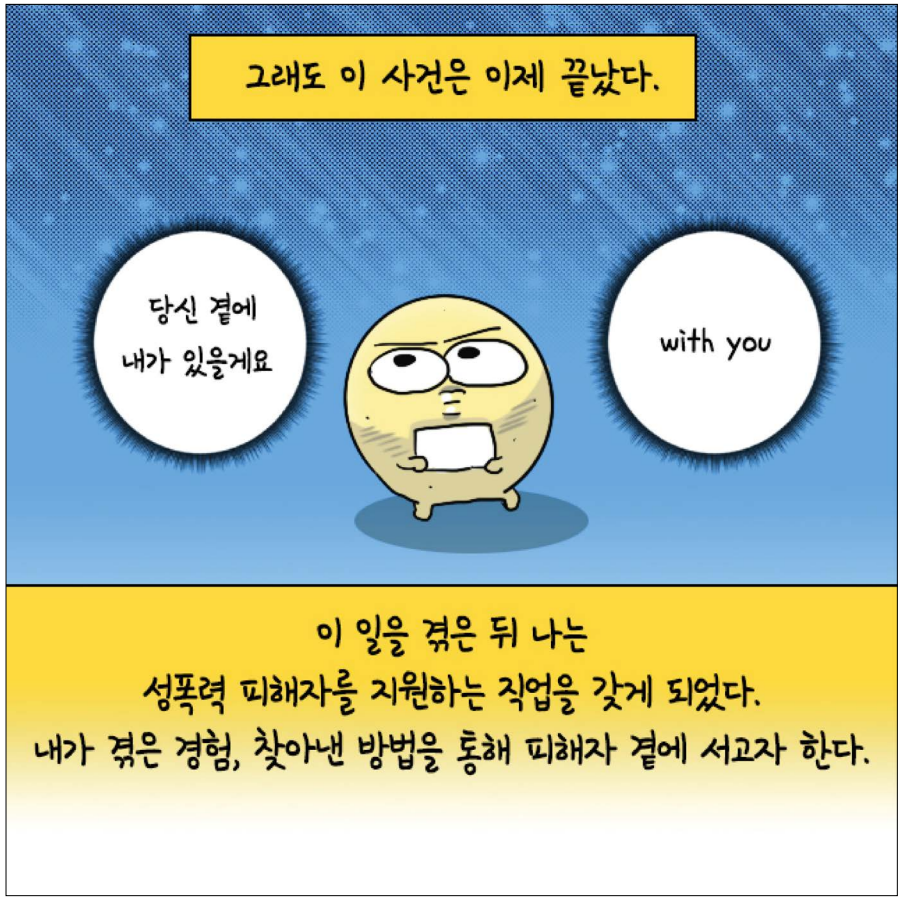
공기관이 불법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원청 감사과에 메일을 썼다.
원청은 몇 달이 지나도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냥 참지
일을 크게 만들어
이기지도
못할 싸움 왜 거나 몰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쟤 때문에 이게 뭐야
회사분위기 똥같네
같은 월급받는데
자기만 맨날 상담가고 자리 비우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얹어졌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끝은 부당해고
나는 끝까지 멈추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아야 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부당해고로인한
월급 5개월치 지급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장은 합의를 제안했다
A씨 고소를 취하해주세요.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부 진정도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다행히 내겐 국정감사가 남았다.
왜 아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죠????
어떻게 불법계약에 대한 것도 몰랐죠??????
공기관의 기관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돈은 받았다.
나는 이긴걸까
진 걸까?
끝내 나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사건은 이제 끝났다.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
with you
이 일을 겪은 뒤 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내가 겪은 경험, 찾아낸 방법을 통해 피해자 곁에 서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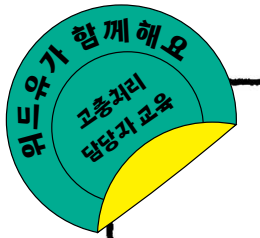
아르바이트생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손님들이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서서 직원을 보호하고, 대처법을 알리는 게 필요해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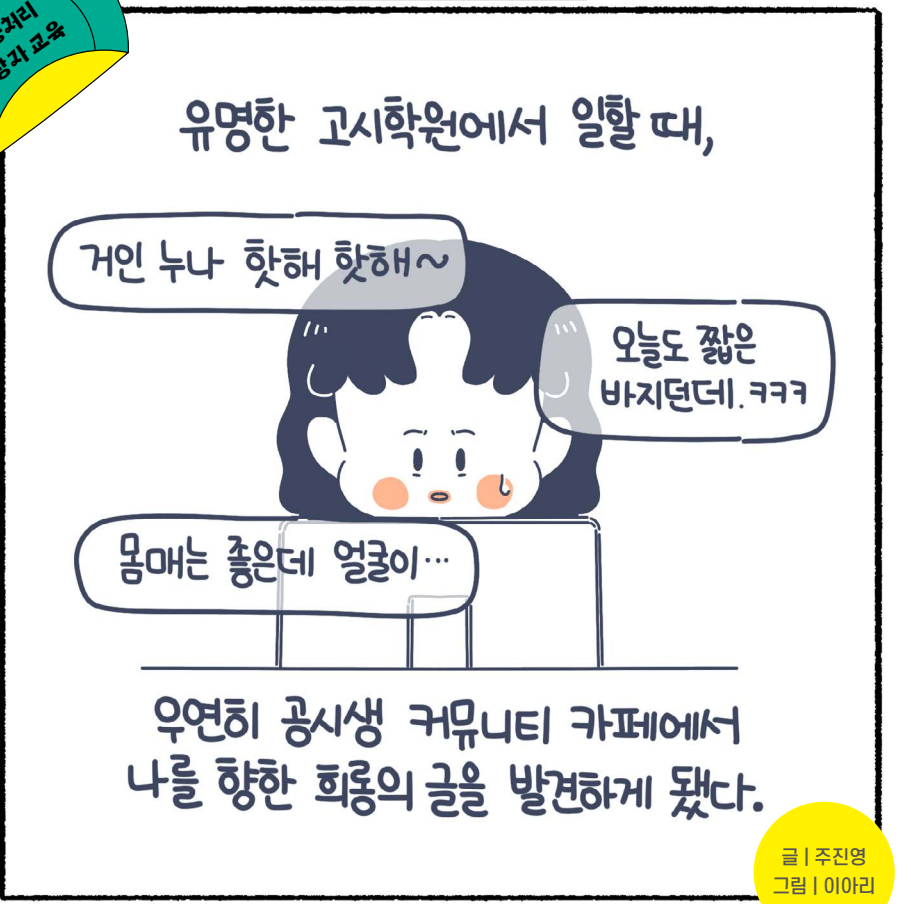
성희롱 신고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은 회사에서 먼저 막아야죠.
피해자에게 또 상처 주는 일은 그만합시다!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성희롱 방지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나 담당관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모든 회사에 도입되면 좋겠네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걸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작은 사업체에서도 예방교육과 안내,
피해자 보호까지 전방위적 대책이 지원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웹툰 댓글 이벤트 참여자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글 | 주진영
그림 | 이아리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가작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했고,
흠칫!
?
저 사람도 그 글을 봤겠지??

내 얼굴이 더 예뻤더라면…
펑퍼짐한 옷을
입었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자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직장 동료들이 매일같이
안내방송을 해준 덕에
죄송합니다…
제가 글 썼습니다…
범인은 빨리 잡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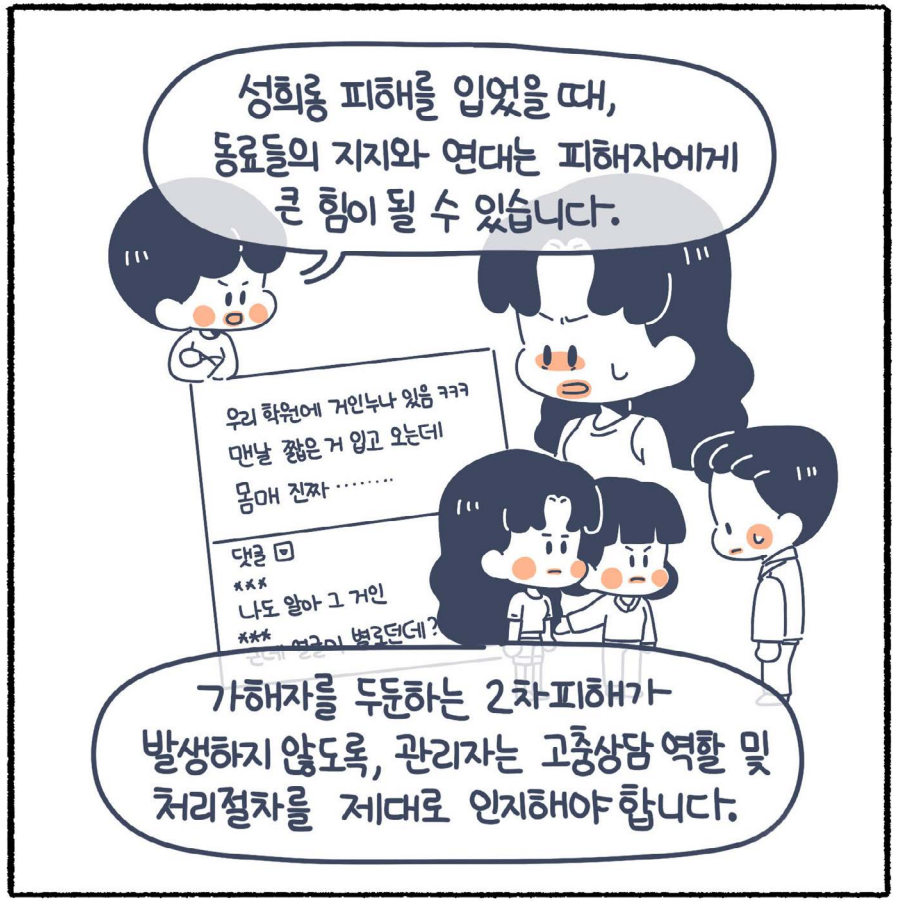
고소까지 생각했던 나와는 달리
본사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원했다.
아직 어린 학생이던데… 형편도 어렵고.
너무
가혹하다~
형사처벌 받으면 시험도 한동안
응시 못하는 거 알잖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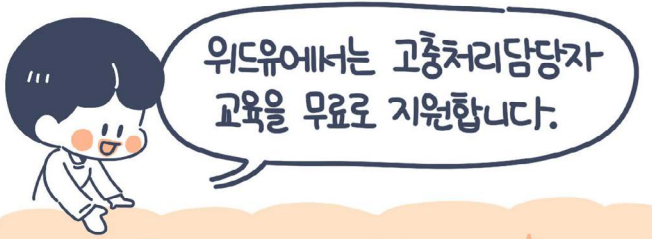
그러자, 직장동료 한 명이 나섰다.

결국 사건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주변의 도움 덕에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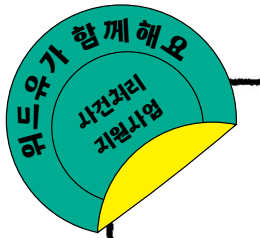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걷는다.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 덕분이야.
내가 즐겨 입는 짧은 바지와
딱 달라 붙는 상의를 입고서 말이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는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거인누나 있음 ㅋㅋㅋ
맨날 짧은 거 입고 오는데
몸매 진짜 ……
댓글 ▣
***
나도 알아 그 거인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고충상담 역할 및
처리절차를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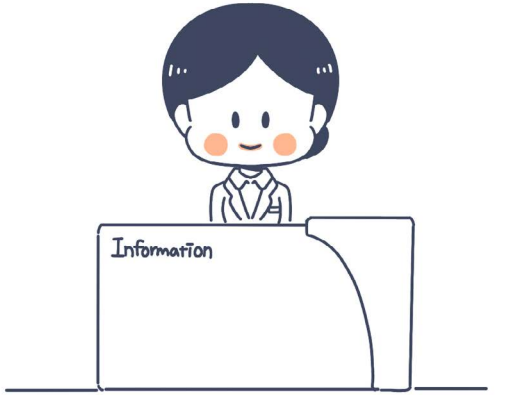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비용 : 전액 무료
신청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신청기간 별도 공개
접수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http:// seoulwithu.kr
02-777-7770 (내선 1)



나의 첫 직장은 백화점의
VIP 주차 라운지였다.



안내데스크는 사람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좁았는데,

글 | 김민영
그림 | 이아리

부지점장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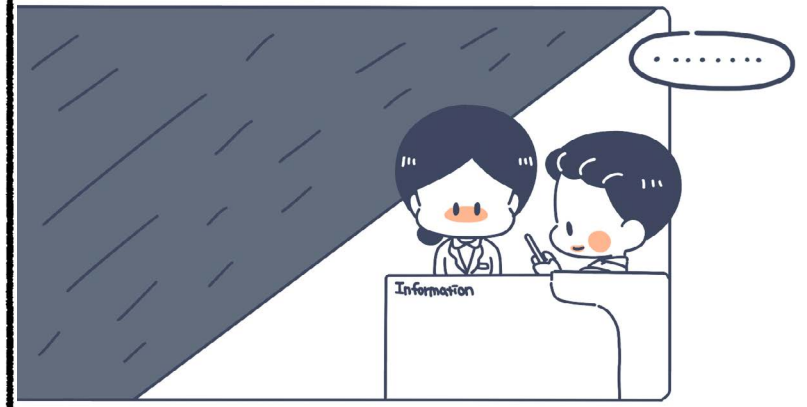
내게 이상한 질문을 하곤 했다.

심지어는 대놓고 야한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다ㅡ.

당당한 그의 태도에
나는 혼란스러웠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기분 나쁜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
내가 느낀 불쾌함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나는 결국
인사 부서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해요…
다음날 나는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
부지점장 신고한
애라며?
언젠가 이런일 터질 줄 알았어.
근데 쟤도 사회생활은
못하는 것 같아.

직원들의 수근거림 속,
부지점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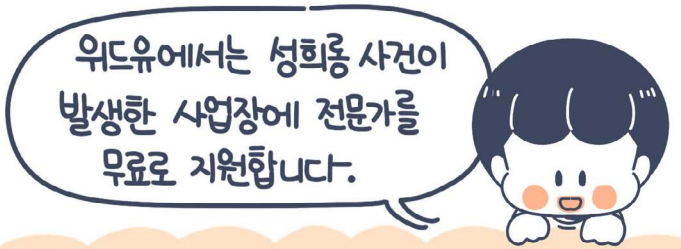
다시금 나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비록 그 회사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행동을 보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더이상 나의 감정을
검열하지 않게 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비용 : 전액 무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사건처리 초기자문 및 코칭,
조사위원, 심의위원
신청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http:// seoulwithu.kr
02-7771-7770 (내선 1)

회사에서 읽는 만화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드는 시민 에세이

발행일 2022년 4월 4일
발행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발행인 박현이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3층
전화 02-771-7770
팩스 02-771-7772
홈페이지 http://seoulwithu.kr
이메일 withu@seoulwithu.kr
디자인 (주)콘텐츠하다(070-8987-2949)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www.seoulwithu.kr
02-771-7770